

國家論의 概要(續)

鮮于

第二 實際上 起源 此實際上 起源에 對하야 는 古來로 幾多의 變遷을 經하야 今日此 複雜한 國家를 組織한 徵跡을 左에 記코져 하노라.

既術함과 如히 人類는 社交性이 有한 者라 孤立 生活함을 不得한 者인 故로 一集合體를 組成하야 生活의 安全을 期함을 得하엿다 하느니 此集合體의 最小한 者는 家族이라. 人類에는 生理上 男女의 別이 有하고 男女의 別이 有한 同時에 夫婦의 關係가 生하고 夫婦가 有한 後에는 親子兄弟의 血族關係가 生하니 此乃家族을 生함시오, 此家族은 卽 一血族 團體라 夫와 父된 者 | 其上에 在하야 家族을 管轄하는지라 家族生活을 營함에 當하야 家族의 長이 되어 妻子의 上에 權力을 有한 者는 年齡, 智力, 體力, 이 共히 他人보다 特秀한 者라 卽夫되고 父된 者實로 生理上 心理上으로 强者 優者의 地位에 立한 者이니 此 卽 自然의 理라 云치 안이치 못할지라. 且祖先崇拜의 念은 人類 自然의 性情으로 子는 父에 出하고 父는 祖에 出한 者된 故로 子는 父를 敬하며 孫은 祖父를 尊하여 家族生活을 함에 當하야 家族이 家長에게 服從함은 一. 家長된 者는 年齡, 智力, 等이 他에 特秀한 者된 同時에 家長은 家族의 出源이 되며 此尊敬의 念으로 依하야 家族이 漸次 膨大함에 及할수록 其子孫이 尙此一人의 家長에 服從하야 平和의 家族生活을 爲함은 此二者의 觀念에 不外한다 하노라. 然이느 家族의 繁殖이 漸多함에 至하야는 此幾多의 家族은 皆相集하야 一家에 生息하는 處所를 同히 하야 起居치 못하깃는 故로 現今과 如히 分家を 하고 從來에 一家가 分하야 幾多의 家를 形成함에 至하여시니 本家 分家의 關係를 生함시오, 彼 所謂民族을 成함에 至한지라. 所謂 民族이라 云하는 者는 家의 集合體로 家에 家長이 有함과 如히 族에도 亦族長이 有하야 家族이 家長을 崇拜하야 此에 服從함과 同一의 思想으로 以하얏도다. 凡家族은 共同의 始祖로 一族의 長을 崇拜하고 其權에 服從하며 族長은 凡家族의 長으로 族全體를 統御하는 地位에 立한者라. 此 卽 血族 團體라 稱하는 者라 國家의 始源은 洋의 東西와 國의 文野를 不問하고 何이던지. 一家一族의 制로 始하야 成하고 特히 我邦이 最著하야 或은

此를 稱하야 血族的 國家라 云하느니 故로 世界의 六強을 論함에 我邦은 倫理之強이라 稱하느니라. 血族 團體의 次로는 領土 團體가 起하얏시니 領土 團體라 云함은 單히 人의 集合으로만 團體를 呼는 者안이요, 團體의 要素되는 者는 一定한 土地 範圍가 有함을 要한다 하느니 何故오, 血族 團體는 發達하여 土地로 要素를 足하다 함이라 原始社會에는 人類는 自然만 依賴하야 生計의 道에 立하며 或은 自己의 住는 地에 自然物이 缺乏을 當하면 一家를 擧하야 他의 土地로 移住하여 所謂 遊牧民의 狀態를 呈하엿는 故로 家의 膨脹은 自然物의 存亡으로 伴는 故로 土地를 移轉는 不便이 生함을 堪치 못하며 茲에 一定한 土地를 占領하고 此를 利用하야 生活의 本據를 作함에 至한지라. 所謂 地上 耕作의 發達은 團體가 土地를 要素로 呼는 時代에 至하야 其 發達을 始得한지라.

領土 團體가 各起하야 各自 團體間에 爭鬪를 惹起함을 不免함에 至한지라. 何故오, 團體의 要素로 有한 土地의 良否는 其 團體員의 生活에 重大의 關係가 有한 故로 各團體의 併合을 生하고 各團體는 合하여 一大 領土 團體를 形造하고 此時를 當하야는 團體의 目的은 單히 團體員의 生活의 安全을 保護하고 共同生活로 因하야 秩序的 生活을 營爲할 事뿐 안이라 團體 卽 其身의 發達 存在를 必要로 하느니 換言하면 團體를 造成한 各 個人의 生存의 外에 團體로 하여서 生存이 有함을 必要로 하는 故로 團體의 結合이 確固하여 能히 統一을 保維하여 生存을 求치 안이하는 者는 自가 滅亡하거나 或은 他체에 併合을 當함은 自然의 勢라 云치 안이치 못할지라. 從하야 一의 團體로 此를 統御하고 管轄는 道가 其宜를 失하면 團體의 平和 統一은 破함에 遂至하야 團體의 分裂을 生하고 幾多의 小團體를 生함에 至함은 亦確然한 事實이라 中世紀에 何國에서 行하던 封建의 制度도 此外에 不出한 者라. 一國의 治者된 者愚昧하여 其 國을 統治는 道가 其 宜를 不得하면 終來 結果는 幾多의 諸侯는 各其 土地에 割據하야 中央의 權力에 服從치 안이하고 一小國의 形을 造함에 至한지라. 此 封建制度의 狀態가 次로 起함은 中央의 權力이 再次 勃興함인가 或은 中央의 權力이 全히 其 勢力을 失함인가 換言하면 諸侯가 再次中央의 權力에 服從하야 一大 國家를 形造하고 或은 諸侯가 獨立하여 中央의 權力은 其實을 失하는 二途其一에 不外한지라. 一言으로 云하면 數國이 更히 合國하거나 或은 一國이 分立함에 至한 二者에 不出한 지라. 今此分立及合同에 就하야 一言코저 하노라. (未完)